

한국과 일본의 제의에 나타난 '마레비토'神

- 제주도 입춘굿을 중심으로 -

이토 요시히데(伊藤好英)*

< 차례 >

- I. 머리말
- II. 장연(長淵)지방의 모의농작
- III. 제주도 입춘굿
- IV. 평산(平山) 소놀음굿
- V. 맺음말

국문요약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는 신(神)의 한 형태로서 '마레비토'라 불러야 하는 神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마레비토'란 극히 드물게 때를 정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는 사람이자, 神인 존재를 의미한다. 즉 일종의 내방신(來訪神)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자 곧 神이며, 사람이 분(扮)한 神이기 때문에 고대 일본인은 그와 같은 神을 '마레비토'라 칭했다는 것이다.

「마레비토」의 기본적인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마레비토」는 형태와 모습(形姿)을 갖고 있다.

* 메이지대학(明治大學)강사

- ② 「마레비토」는 「주언(呪言)」의 발화주체이다.
 ③ 「마레비토」는 신으로서의 동작을 행한다.

‘마레비토’라는 개념은 오리쿠치가 일본의 민속 안에서 추출해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구조적인 개념인 만큼 분석개념으로서 어떤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몇몇 제의민속을 이 개념을 통해 구체적으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룰 한국의 사례는 장연지방(長淵地方)의 ‘모의농작·제주도의 ‘입춘 곳·평산(平山)의 ‘소놀음굿’ 세 가지이며, 일본의 사례는 아와지시마(淡路島)의 ‘야마돗산(山どっさん)·나라현(奈良縣) 다무케야마(手向山) 하치만구(八幡宮)의 ‘온다(御田)·오키나와(沖繩)의 ‘무라오도리(村踊)’ 세 가지이다.

장연지방의 모의농작행사에 등장하는 산신이나, 아와지시마의 산신인 야마돗산 모두 눈에 보이는 신으로서 풍작(豊作)을 예측하는 언동을 취한다. 제주도의 입춘곳에 등장하는 호장(戶長)과 그 권속(眷屬), 그리고 평산 소놀음굿에 등장하는 제석(帝釋)이하의 신들 역시 눈에 보이는 신으로서 ‘마레비토’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일본과 비교하면, 입춘곳의 ‘호장’은 나라현 온다의 ‘다아루지(田主)’와 그 역할이 유사하고 평산 소놀음굿에는 오키나와의 무라오도리 행사와 유사한 ‘모도키’ 구조가 보인다.

‘마레비토’란 신을 환시(幻視)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장치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의 각 지역에는 이와 같은 장치가 질게 남아 있다. 양국의 그와 같은 ‘마레비토’민속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금후의 제의연구나 연극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오리쿠치시노부(折口信夫), 마레비토(まればと), 모의농작, 입춘곳, 소놀음굿, 야마돗산(山どっさん), 온다(御田), 무라오도리(村踊)

I. 머리말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는 신(神)의 한 형태로서 '마레비토'라 불러야 하는 神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마레비토'란 극히 드물게 때를 정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는 사람이자, 神인 존재를 의미한다. 즉 일종의 내방신(來訪神)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자 곧 神이며, 사람이 분(扮)한 神이기 때문에 고대 일본인은 그와 같은 神을 '마레비토'라 칭했다는 것이다.¹⁾

'마레비토'의 기본적인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마레비토'는 형태와 모습(形姿)을 갖고 있다.
- ② '마레비토'는 「주언(呪言)」의 발화주체이다.
- ③ '마레비토'는 신으로서의 동작을 행한다.

'마레비토'라는 개념은 오리쿠치가 일본의 민속 안에서 추출해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구조적인 개념인 만큼 분석개념으로서 어떤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발표에서는 제주도의 입춘굿을 중심으로, 한일의 몇 가지 제의민속을 이 개념을 통해 구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룰 한국의 사례는 장연지방(長淵地方)의 모의농작행사, 제주도의 입춘 굿, 평산(平山) 소놀이굿 세 가지이다. 이와 유사한 일본

1) 고대의 일본어에서 '마레비토'의 '마레'는 회수가 극히 드문 것을 나타내며, '히토'는 선택된 사람을 의미한다.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의 '마레비토' 관념에 관해서는, 이토 요시히데(伊藤好英),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의 예능학을 통해 본 한국의 민속」(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38-53쪽 및 이토 요시히데 『折口學が読み解く韓國藝能—まればとの往還』(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6)53-78쪽에 상술하였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의 민속은 각 서술 안에서 그 때 그 때 소개하겠다.

II. 장연(長淵)지방의 모의농작

먼저 황해도 장연지방의 모의농작행사를 고찰해보겠다.

손진태(孫晉泰)는 「隨聞錄」 안에서, 1923년에 황해도 장연군의 오성근(吳成根)에게서 들은 담화(談話)로서, 이 행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黃海道 長淵郡에서는 陰曆 正月 15日 아침부터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여 山쪽과 浦쪽(山岫·개곶)으로 나뉘어 擲柶(長柶를 쏘)의 놀이를 한다. 그리고 山쪽이 이기면 금년은 山의 농사가 잘 된다고 하며 浦쪽이 이기면 浦의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놀이가 끝나면 그들은 마을의 廣場에 나와서 稻植劇을 行한다. 그때 山神이 되는 男子는 암소를 거꾸로 타고 몸에는 道袍를 입고 머리에는 儒冠을 쓰고 山쪽에서 내려 온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이것을 맞이하여 잠시동안 歌舞하고 난 후 모심을 때와 꼭 같은 扮裝으로 종이나 짚(藁)등으로 아주 잘 익은 벼이삭과 같은 것을 만들어 손에 손에 그것을 갖고 農歌를 樂器에 맞추어 벼를 심는 시늉을 한다. 그 동안에 山神은 암소의 등에 거꾸로 탄 그대로 劇場속을 돌아다닌다. 또 山神은 원숭이 등을 使用하여 觀衆을 즐겁게 할 수 있다. 모심기가 끝나면 재차 樂器를 통기며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한다. 마을 사람들은 男女老幼를 不問하고 모두가 廣場에 모여와서 이것을 구경하며 하루를 즐긴다. 山神이 된 男子는 그 하루 동안 絶對的인 尊敬을 받고 親舊, 他人 等은 勿論이고 그의 웃어른이나 마을의 老人들까지도 그를 尙해 卑語를 쓰는 것은 容納치 않는다. 거기에 反해서 그는 누구에게나 허리를 굽히지 않고 하루 온종일 黙黙히 소의 등에 타고 놀이터를 悠悠히 돌아다니는 것이다.²⁾

2) 孫晉泰, 「隨聞錄」, 『孫晉泰先生全集』 제6권, 太學社, 1981, 337쪽.

이 행사는 정월 15일에 산신을 불러 행해지는 농경의례이다. 시기로 보아 본래는 동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연말부터 대보름에 걸친 동제 시기에는 서낭신과 산신(山神) 등의 신이 눈에 보이는 신, 즉 마레비토로서 마을을 방문하는 예가, 하회 별신굿과 주곡·수동·수영의 마을굿 등에 보이는데, 장연 지방의 이 산신도 그와 같은 신의 일종이다. 마레비토가 마을을 방문하는 목적을 단적으로 말하면 벽사진경이다. 지령에게 작용을 하여 나쁜 작용을 미치는 원인을 없애고 좋은 작용을 이끌어낸다. 지신밧기는 그를 위해 행해진다. 장연 지방의 산신도 당연히 이 벽사진경의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장연 지방의 산신 출현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이 산신 역할은 무엇보다도 농사가 보다 잘 되게 하는 데에 있다. 그것도 주로 논농사의 촉진이다.

이 신이 출현할 때, 젊은이들은 모심기를 하는 연기를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모의농작이다. 모의적으로 농작업의 과정을 연기함으로써 그 해의 풍작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 때 사용하는 모는 매우 좋은 모이다. 산신은 소의 등에 올라타고 다니며 그 작업을 보고 다닌다. 이 산신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산신이 농업신(農業神)으로서 신의 권속인 젊은이들에게 명하여 예측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혹은 마을 사람들이 산신에게 농사의 진행을 보여주고 그대로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여겨진다. 그 어느 쪽이든 마을 사람들이 산신에게 농사의 성취를 기원하고 산신이 그 성취를 보증하는 의식임에는 변함이 없다. 요컨대 이 경우, 산신은 농업신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산신이 농업신 특히 논(田)의 신으로 전환하는 것은 韓·日의 민속에 공

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수영(水營)의 대보름 제의와 같이 한국에서 동계의 주신이 山神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산신이 농사의 진행을 돌보고 있다는 신앙에 기초한 것이리라. 일본에서도 농민의 신앙으로서 산의 신과 논이 신은 동일한 성격의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장연지방의 산신과 마찬가지로 산의 신이 논이 신의 성격을 갖고, 또한 마레비토로서 마을을 방문하는 일본의 예를 하나만 소개하겠다.³⁾

아와지시마(淡路島)에 야마돛산(山どっさん)이라는 신이 있다. 이는 이름 그대로 산신인데, 1월 9일 밤, 마을 사람을 축복하고 풍작을 가져다주기 위해 마을 뒷산에서 도롱이와 삿갓 차림으로 내려온다고 여겨진다. 이 신은 옛날 마을 사람들에게 도작(稻作) 기술을 가르친 신이라고 전해진다. 1월 9일 오후에는 각 민가에서 야마돛산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한다. 야마돛산은 각 집마다 부르는 것이다. 자시키(座敷), 즉 객실의 상좌에 깔개를 깔고 벽에 팽이를 하나 세워 걸고 도롱이와 삿갓을 씌워 제단으로 삼고, 그 앞에 공물을 바치는 상을 마련한다[그림 1].

[그림1] 야마돛산(折口學が読み解く韓羅雜能—まれびとの往還, 촬영 芳賀日出男)



3) 森田悌·金田久璋, 『田の神まつりの歴史と民俗』, 吉川弘文館, 1996, 252~256쪽 및 西谷勝也, 『季節の神々』, 慶友社, 1990, 3~32쪽 참조

공물을 다 바치면 집 주인이 논두렁에 나가 풍작을 기원하는 주문을 외운다. 이렇게 하면 밤새 아마돗산이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이튿날 아침, 집 주인이 세워서 걸어 두었던 삿갓과 도롱이를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와 준비해 두었던 기장을 절구로 찜어낸다. 이는 집 주인 자신이 아마돗산으로 분하여 신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삿갓과 도롱이는 오리쿠치가 고전의 자료 등에서 마레비토 분장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집 주인의 이 마지막 행위로 아마돗산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지닌 神 마레비토로 출현한다.

다음으로 장연지방의 이 의례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의례는 전체적으로 농경 예축 의례라 볼 수 있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대규모 농경 예축 의례는 대보름을 중심으로 하는 신춘(新春)에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행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가지는 농작물의 풍작 상태를 장식물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도작 작업의 절차를 모의적으로 연기하는 것이다. 前者는 한국에서는 內農作 혹은 假農作이라 불리고, 일본에서는 '모노쓰쿠리(物つくり)'라 불린다. 後者인 모의농작을 가리키는 말은 양국 모두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前者를 가리키는 '內農作' '假農作' '모노쓰쿠리(物つくり)' 등의 명칭은 본래 후자인 모의농작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은 아닐까? 원래 전자와 후자는 동일한 의례 안에서 행하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의례를 '모의농작'이라는 의미에서 '內農作' '假農作' '모노쓰쿠리(物つくり)'라 부른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일본에는 '모의농작'을 가리키는 말에 '다아소비(田遊び)' '온다(御田)' '하루타우치(春田打)' '하루쿠와(春鍬)' 등이 있다. 학술용어로는 이들을 일괄하여 '다아소비(田遊び)'라 부른다. 장연지방의 의례는 이 일본의 '다아소비(田遊び)'라 불리는 행사와 매우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연지방의 모의농작 의례에서 하는 젊은이들의 행동은 일반 동제(洞祭)에서의 농악대의 행동과 같은 종류이다. 그들은 신을 맞이하여 악기를 연주하고 그에 맞추어 농가(農歌)를 부르며 춤을 춘다. 그리고 그들의 모의농작 동작도 이 농악의 행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여러 지역에 전해오는 농악 중에는 농작업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꽤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강릉 홍제 농악의 판굿 중에는 ‘농사풀이’가 있어, ‘가래질’ ‘논갈기와 논삼기’ ‘못자리 누르기’ ‘못지기’ ‘모심기’ ‘논매기’ ‘낫갈기’ ‘벼베기’ ‘벼괏이기’ ‘태치기’ ‘벼모으기’ ‘방아짚기’를 행한다. 고성농악과 청도 차산농악의 판굿에 보이는 ‘농사풀이’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⁴⁾ 장연지방의 의례에 보이는 젊은이들의 행동에서 역으로 추측해보면, 이들 농악에서의 ‘농사풀이’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것들이 모의농작에서 비롯된 동작임은 명백하다. 또한 장연 지방의 의례에는 모심기 동작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본래는 더 많은 종류의 도작(稻作) 모의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리란 점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제주도 입춘굿

장연 지방의 모의농작의례에서 맞이하는 산신이 農業神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산신으로 분한 남자가 소를 타고 나타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소는 농경에 관계가 깊은 가축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에서 농경의례에는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다아소비(田遊び)계통의 제례인 니노(新野)의 유키마쓰리(雪祭り)에는 옛날부터 ‘소’라는 중요

4) 鄭炳浩, 『農樂』, 열화당, 1986, 161~178쪽 참조

한 神事가 포함되어 있다. 冠·祭服으로 위엄을 갖춘 宮司(神主)가 바구니에 검은 천을 씌워 만든 소를 허리에 매달고 마차 소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제사 마당에 나타나 배전 지붕을 향해 화살을 쏜다. 이는 神이 소를 타고 나타났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소가 진짜가 아니라 만든 소라는 점은 장연지방과 다르다.

다음에 드는 제주도의 입춘(立春)굿에도 만든 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등장한다(그림 2).

[그림2] 제주도 입춘굿 임시공연, 1914년6월6일(村山智順 寫眞帖)



이 입춘굿 역시 마레비토가 출현하는 모의농작의 예이다. 이 굿은 단독 마을에서 행하는 굿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관에서 주관하여 치러졌던 무속굿이다. 일제시대에도 1930년대 무렵까지는 계승되었다.⁵⁾ 金斗

5) 마을의 노인들의 기억에 위하면 2000년의 시점에서 “5,60년 전까지도 행해졌다”고 한다. (文武乘, 『탐라입춘굿놀이』,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0, 2쪽 참조). 또 근대 이후의 입춘굿을 기록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鳥居龍藏, 『民族学上より見たる濟州島(耽羅)』, 『東亜之光』 9卷12号, 10卷2号, 1914, 1915, 後に『日本周圀民俗の原始宗教』, 岡書店, 1924에 수록. 金斗奉, 『濟州島実記』, 濟州島実蹟研究社, 1936. 全羅南道濟州道廳 편, 『未開의 宝库 濟州道』, 全羅南道濟州道廳, 1924. 또한 1999년에 제주시에 의하여 <탐라국립춘굿놀이>로서 입춘굿이 부원·전승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奉의 『濟州島實記』에 의하면 행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매년 입춘 전 1일에 全島 巫覡을 州司에 集合하고 木牛를 造成하여 祀祭하며 翌朝에 戶長이 머리에 桂冠을 쓰고 몸에 黑團領 禮服을 입고 出動하여 木牛에 農械를 갖추고 巫覡輩는 紅團領 彩服을 입고 巫覡이 木牛를 끌고 前路에는 六律을 갖추고 뒤에는 童妓로 護從하며 징, 팽매기, 巫樂器 등을 울리며 戶長을 護衛하여 觀德亭에 이르면 戶長이 巫覡輩를 閭閻집에 派遣하여 儲置한 穀倉束을 뽑아오게 하고 뽑은 바 實否를 보아서 新年의 풍경(豐歉)을 징험하며 또 그 모양으로 客舍에 이르러 戶長과 巫覡이 現身하고 東軒에 이르러 戶長이 장기와 답이를 잡고 와서 밭을 갈면 한 사람은 赤色 假面에 긴 수염을 달아 農夫로 꾸미고 五穀을 뿌리며 또 한 사람은 色羽러서 새와 같이 꾸미고 주워 먹는 형상을 하면 또 한 사람은 獵夫로 꾸미어 色鳥를 쏘는 것과 같이 하고 또 두 사람은 假面하여 女優로 꾸미고 妻妾이 서로 싸우는 尙상을 하면 또 두 사람은 假面하여 男優로 꾸미고 妻妾이 투기하는 것을 調停하는 모양을 하면 牧使는 座上에 앉아서 酒肴와 煙草를 많이 주며 與民同樂之風을 보인다. 觀光者는 다 웃고 또 本官衙에 이르러서도 또 그와 같이 하면 假飾한 사람들은 英雄豪傑같이 보인다. 戶長은 물러가고 巫覡輩는 集合一隊에 積造창(糶糶倉)에 들어 뛰놀며 어지러이 춤추고 淸淸한 목소리로 年豐의 呪文을 외며 泰平을 즐기고 散會한다.⁶⁾

이 행사의 구성은 일본의 다아소비(田遊び)와 매우 유사하다. 이 농경극(農耕劇)에서는 주역이 호장이고 무격들이 그 권속 역할을 한다. 호장과 무격들은 나무로 만든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연희를 하고, 씨 뿌리기와 새 쫓기를 연기한다. 또한 수확을 기뻐하며 곡식창고에 들어가 논다. 전형적인 모의농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들이 마레비토神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6) 金斗奉, 앞의 글, 19~21쪽.

호장에 관해서 말하자면 예전에는 진짜 호장이 이 역을 했던 시기가 있었을지도 모르며, 그렇지 않더라도 호장이 신이 아닌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호장은 그 토지의 주인역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야마돗산 행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신을 영접한 주인이 그 신의 분장을 하고 행동하는 예는 상당히 많으며, 입춘굿의 경우도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장은 당일, 머리에 계관을 쓰고 몸에 흑단령 예복을 입고 출동하고, 이에 홍단령 채복을 입은 무격배와 동기들이 무악기 등을 울리며 뒤따른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일본의 다아소비(田遊び) 예에 비추어 보아도 신의 내방 행렬이라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모의농작의 동작도 표면은 목사에 대해 호장과 농민이 근면을 서약하는 의례처럼 보인다 하여도 원의적으로는 풍년을 예측하는 신과 그 권속들의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호장은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이며 신인 존재, 즉 마레비토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의 다아소비(田遊び) 예를 살펴보자.

나라현(奈良縣)의 다무케야마(手向山) 하치만구(八幡宮)에서는 양력 2월 3일에 '온다(御田)'라 불리는 다아소비(田遊び)를 행한다. 본래는 역시 정월 행사였다. 행사의 역할 구성은 다아루지(田主) 1명, 소 역할 1명, 사오토메(五月女) 2명, 小鼓打 1명, 鉦打 1명, 지우타이(地謠:코러스) 몇 명이다. 소 역할은 소년이 머리에 쇠뿔을 달고 연기하고, 사오토메(五月女)역은 소녀가 연기한다. 다른 역은 어른이 한다.

행사는 오전 중에 시작한다. 먼저 마쓰리의 역할을 담당한 이들이 행렬을 짜서 도행가를 부르며 정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온다. 일동이 무전에 도착하여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으면 다아루지(田主)役이 오키나(翁)가면을 쓰고 무전 앞 땅에 내려와 논(田)의 신(田神)을 모시는 제사를

행한다. 그 후, 다아루지는 다시 무전에 오르고 일동은 모의농작 행사를 거행한다. 모의농작은 ‘구와하지메(鍬初め: 쟁이질 시작하기)’ ‘스키하지메(犁初め: 쟁기질 시작하기)’ ‘에부리사시(땅고르기)’ ‘施肥’ ‘다네마키(種蒔き: 씨뿌리기)’ ‘나에미(苗見: 모종보기)’ ‘사오토메마네키(五月女招き: 사오토메 부르기)’ ‘다우에(田植え: 모심기)’의 순번으로 행해진다. 우선 다아루지(田主)가 쟁이를 지고 등장하고, 반주에 맞추어 코러스인 지우타이(地謠)와 노래를 주고받는다. 그것이 끝나면 다아루지(田主)는 쟁이를 내려놓고 쟁기를 꺼내와 정면을 향해 놓는다. 그 앞에는 소 역할을 하는 소년이 붙는다. 역시 소를 부려 논을 가는 모습을 지우타이(地謠)와 주고받으며 노래한다. 이와 같이 다아루지(田主)가 주연을 맡아 ‘다우에(田植え: 모심기)’까지를 연기한다. 사오토메(五月女)는 모심기를 하는 역할인데, 그 직전에 다아루지(田主)에게 불러나가 무대로 등장한다.⁷⁾

다아소비(田遊び)와 제주도 입춘굿의 유사점은 명백하다. 다무케이마하치만구(手向山八幡宮)의 다아소비(田遊び)에 등장하는 다아루지(田主)는 입춘굿의 호장에 해당한다. 다아루지(田主)란 중세시대 田地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로, 다아소비(田遊び)나 다우에(田植え) 행사의 총지휘자이기도 하다. 이 다아루지(田主)가 오키나(翁) 가면을 쓰는 것은 그가 神格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아루지는(田主)는 논 소유자로서 논 신을 제사지내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와 동시에 논 신 자신으로도 분(扮)하는 것이다. 다아루지(田主)를 중심으로 하는 다아소비(田遊び)의 연기자들은 행사에 앞서 경내의 외부로부터 신사를 찾아오는 자로서 행동한다. 그 행렬은 입춘굿 호장 일행의 행렬과 마찬가지로 신의 행렬로서 파악된다. 그들은 어느 일정한 시기에 어떤 목적을

7) 新井恒易, 『農と田遊びの研究』下巻, 明治書院, 1981, 123~132쪽 참조.

가지고 마을을 찾아오는 마레비토신의 단체인 것이다.

다무케야마 하치만구(手向山八幡宮)의 다아소비(田遊び)에서는 演目の 종류도 적고, 다우에(田植え) 즉 모심기가 演目の 마지막 순서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다아소비(田遊び)에서는 '다네마키(種蒔き : 파종)' 후에 '도리오이(鳥追い : 새 쫓기)'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우에(田植え)'의 演目 후에는 '다노쿠사토리(田の草取り : 풀 뽑기)' '가리이레(刈り入れ : 추수하기)' '구라이레(倉入れ : 곳간에 넣기)' 등의 연목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의 입춘굿에서 巫覡이 새와 사냥꾼으로 분(扮)하는 것은 다아소비(田遊び)의 '도리오이(鳥追い)' 연목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호장과 무격들이 적조창(糶糶倉)에 들어가 뛰놀며 어지러이 춤을 추는 것은 다아소비의 '구라이레(倉入れ)' 연목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입춘굿에서 가면을 쓰고 여우(女優)와 남우(男優)로 분하여 남녀의 갈등을 연기하는 것은 다아소비에 종종 보이는 할아범(爺)과 노파(婆), 혹은 할아범(爺)과 젊은 여자가 서로 끌어안는 일종의 감염주술적(感染呪術的)인 연희와 비슷한 것이 보다 연극적인 형태로 변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쨌든 제주도의 입춘굿이 장연지방의 산신 내방 의례와 함께 일본의 다아소비(田遊び)와 그 목적과 형태를 같이 하는 의례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IV. 평산(平山) 소놀음굿

같은 종류의 모의농작 의례를 한가지 더 들어보겠다. 황해도 평산군의 소놀음굿이다. 소놀음굿은 무당이 하는 곳의 일부로,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대보름과 추석 때 행해져왔다. 황해도 평산군의 소놀음굿과 경기도 양주군(楊洲郡)의 소놀음굿이 유명하다. 평산 소놀음굿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곳은 농사와 상업변창, 자손번영을 기원하는 경사굿으로 행해지는데 마을사람이 총동원되는 축제로서 이 굿을 통하여 마을의 협동과 화합을 도모한다. 무당의 열 다섯 거리 경사굿 중 제5 제석거리에 이어 소놀음굿을 행한다. 이들은 양주의 소놀음굿과도 비슷하다. 소놀음굿은 우선 프롤로그로서 제석(帝釋)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지상에 내려와 인간을 탄생시키고 조선국을 개국한 내력을 무당이 무가로써 부른다. 다음으로 농신이며 산신(産神)이고 수명신인 제석이 이 놀음의 주역이 되고, 상대역으로는 마부(소부리는 사람)가 상대역이 되어 무가를 부르고 대화를 나누며 진행한다. 마부는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애미보살은 씨를 뿌리고, 지장보살은 김을 매고, 신농씨는 농사일을 지도한다. 제석은 소를 길들이고, 쟁기를 매우는 법을 가르치고, 인간들에게 식량을 주기 위해 방아를 찧는다. 집을 지어 주기 위해 지정을 다진다. 산신으로서 아이도 점지해준다.⁸⁾

(삼불)제석역은 가사 매고 염주 걸고, 제석굿 옷을 입으며, 마부역은 바지저고리에 병거지를 쓰며, 애미보살(愛味菩薩)역은 치마저고리에 수건 쓰고 허리에는 조트래(바구니)를 찬다. 지장보살(地蔵菩薩)역은 치마저고리에 호미를 든다. 신농씨(神農氏)역은 갓 쓰고 도포 입고 책을 든다. 어미소(약대)역과 송아지역은 종이로 만든 소머리를 잡고, 덕석을 뒤집어쓴다.' '동원되는 만신은 6명이고, 짚이는 장고, 징, 저 등 셋이다.' '보통 이 굿은 해가 질 무렵에 시작하여 동이 트는 새벽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⁹⁾

이 곳에도 역시 가장한 소가 등장한다. 소 역할을 하는 무당은 두 사람(어미소 역과 송아지 역)이다. 그 외에 제석역·애미보살역·지장보살역·마부역을 연기하는 무당이 있으므로 연기를 하는 무당은 전부해

8) 李杜鉉, 『新修版 韓國演劇史』, 학연사, 2000, 148쪽.

9) 李杜鉉, 『黃海道 平山소놀음굿』, 『선청어문』, 16-17, 1988, 568~569쪽.

서 6명이다. 여기에 무악을 연주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곳도 지금까지 보아온 곳이나 일본의 다아소비(田遊ビ)와 마찬가지로 모의농작의례인데, 이 의례에 참석하는 전원이 무당이며, 무당이 행하는 경사굿의 일부라는 형태를 취하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의례의 정신과 내용은 다른 모의농작의례와 다르지 않다.

평산 소놀음굿에서의 제석역 무당은 장연지방의 의례의 산신, 제주도 입춘굿의 호장, 다아소비(田遊ビ)의 다아루지(田主)에 해당된다. 또한 야마dot산 의례에서 야마dot산으로 분하는 집 주인 입장에도 가깝다.

굿의 프롤로그 부분에서는 제석역 무당이 다른 무당들과 무가를 부르면서 제석천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지상에 내려온 내력을 이야기한다. 이 단계에서는 제석役의 무당은 아직 신을 제사지내는 자의 입장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의농작 연회가 시작되면 제석役 무당은 다른 무당들과 함께 神으로 변신한다. 말하자면 제사를 올리는 자에서 제사지내는 자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실은 이 전환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의례에서 호장·다아루지(田主)·야마dot산役의 이들도 보여주고 있는 전환이다. 그들은 논외 소유자임과 동시에 논외 신을 제사지내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기도 하다. 다만 그들과 평산 소놀음굿의 제석役 무당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자로부터 제사받는 자로의 강한 연속성이다. 즉 소놀음굿에서는 프롤로그의 노래 내용에서 자연히 신 자신의 연회로 이어져가고 있다. 그 강한 연속성은 단적으로 말하면 巫歌의 힘에 의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무가를 전문 기능으로 가진 무당의 변신 기능에 의한 것이다. 요컨대, 무당은 말을 구사함으로써 신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불러들인 신으로 자신이 변신한다.

평산 소놀음굿의 특색은 많은 모의농작의례 중에서도 그 놀이를 연기하는 자의 마레비토적인 성격이 매우 짙게 나타나는 점이다. 지금까

지 모의농작을 행하는 자가 사람임과 동시에 신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남겨진 흔적을 통해 예증하고자 하였다. 모심기를 하는 장연 지방의 젊은이들 집단, 절구를 찜는 아마돗산, 農事풀이를 행하는 농악대, 밭을 갈고 새를 쏘는 입춘굿의 무격들, 다아소비(田遊^ウ)를 하는 다아루지(田主)와 사오토메(五月女) 등이 그것이다. 평산 소놀음굿의 예는 이들 모의농작을 행하는 자들이 역시 본래는 신으로서 그들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이 곳에서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소에게 쟁기를 매는 방법을 가르치고, 농사를 가르치고, 절구를 찜는 것은 제석천·애미보살·지장보살·신농씨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자신이다. 모습과 형태를 갖고, 신으로서의 언동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행하는 것이 마레비토神이라고 한다면 이 곳의 신들은 마레비토神의 원형을 명백히 보여주는 귀중한 예이다. 일본에도 이와 같이 전형적인 마레비토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모의농작의례에 보이는 마레비토는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의 마레비토 이론을 보강하는 유력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하에서 살펴보듯이 마레비토론의 일환인 오리쿠치의 '오키나(翁)의 發生'론도 보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오리쿠치는 오키나와(沖繩)의 민속에 보이는 마레비토의 예로서 '무라오도리(村踊)'의 '조자노우후슈(長者の大主)'와 '기라이노우후누시(儀來の大主)'를 들고 있다. '무라오도리(村踊)'는 오키나와(沖繩) 본도의 많은 마을에서 행해지는 음력 3월 청명절의 행사이다. 이를 행하는 것은 마을의 여러 젊은이들로 조직된 단체인데 그들은 낮 동안에 마을 광장에서 모두 모여 악기를 울리면서 대오를 지어 행진한다. 이 때, '조자노우후슈(長者の大主)'라는 作法과 코믹한 짧은 연극인 교젠(狂言)이 행해진다. 오리쿠치는 '조자노우후슈(長者の大主)'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자노우훗슈(長者の大主)는 그 마을의 선조(祖先)라 생각되는 자인데, 백발의 노옹으로 분하고 있다. 이것이 무라오도리(村踊)의 선두에 서는 일행의 우두머리이다. 이 우두머리가 무대에 오르면 역명을 페이친(親雲上)이라 칭하는 자가 맞이하여 대접하는 것이다. 이는 정통 자손의 족장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의거한 것이다. (중략) 류큐(琉球)의 연극의 맹아라 할 수 있는 무라오도리(村踊)는 먼 곳에서 내림하는 祖靈 및 권속의 놀이에서 그 기원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고장에서는 페이친(親雲上)이 우훗슈(大主)를 맞이한 후, 부채를 들어 부르면 기라이노우후누시(儀來の大主)가 등장하여 오곡의 씨앗을 페이친(親雲上)에게 주고 떠난다. 그 후, 교젠(狂言)이 시작된다.¹⁰⁾

조자노우훗슈(長者の大主)의 작법에는 조자노우훗슈(長者の大主)·페이친(親雲上)·기라이노우후누시(儀來の大主)라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자가 등장한다. 조자노우훗슈(長者の大主)는 외부에서 방문하는 신들의 우두머리이다. 페이친(親雲上)은 그를 영접하는 마을사람들쪽의 족장이다. 기라이노우후누시(儀來の大主)는 토지 정령의 표징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조자노우훗슈(長者の大主)의 행위를 반복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혹은 정령과 신하라는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지닌 자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앞 절에서 고찰했듯이 오리쿠치의 이론에서 정령 또한 마레비토의 일종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자노우훗슈(長者の大主)와 기라이노우후누시(儀來の大主)는 넓은 의미에서의 마레비토이며, 페이친(親雲上)은 그를 맞이하는 주인역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이 오키나와(沖繩)의 '무라오도리'와 평산의 소놀이굿을 대비해보자. 소놀이굿의 제석은 '무라오도리'의 조자노우훗슈(長者の大主)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석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농경을 가르치고 실

10) 「國文學の發生(第三稿)」, 신전집 제1권, 35쪽.

제 농작업을 행하는 소놀음굿의 애미보살·지장보살·신농씨 세 신은 페이친(親雲上)에게 오곡의 씨앗을 주고 떠나는 ‘무라오도리’의 기라이노우후누시(儀來の大主)에 해당한다. 즉, 애미보살·지장보살·신농씨 세 신은 마레비토인 제석의 의지를 실현하거나 행위를 반복하거나 하는 하위의 마레비토의 위치에 있는 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리쿠치는 이 ‘조자노우후츄(長者の大主)’ 의례를 노(能)의 오키나(翁)와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연극 중에서, 조자노우후츄(長者の大主)의 형식과 같은 형태가 남아있는 것은 노오가쿠(能樂)이다. 오키나(翁)의 ‘신가’를 보더라도 오키나(翁)는 농경을 축복하는 신이, 예술화되어 가는 도중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자노우후츄(長者の大主)는 ‘오키나(翁)의 기원’을 보여 주고 있으며, 기라이노우후누시(儀來の大主)는 ‘오키나(翁)의 의미’를 말해 주고 있다. 더구나 후자는 단순히 오키나(翁)가 이증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산바소(三番叟)의 기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¹⁾

오리쿠치는 ‘무라오도리(村踊)’의 ‘조자노우후츄(長者の大主)’에서 오키나(翁)의 기원을 보고 있다. 그리고 ‘기라이노우후누시(儀來の大主)’에서 산바소(三番叟)의 기원을 보고 있다. 즉, 노(能)의 오키나(翁)가 본래는 ‘조자노우후츄(長者の大主)’와 마찬가지로 농경을 축복하기 위해 권속을 이끌고 마을을 찾아오는 신이며, 산바소(三番叟)가 ‘기라이노우후누시(儀來の大主)’와 같이 그 축복의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체현하는 또 한 명의 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주장한다. 우리는 오리쿠치의 이 주장의 연장선상에, 평산 소놀음굿의 제석천과 애미보살·지장보살·신농씨를 둘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제석천은 오키나(翁)의 위치에 있는 자이며, 애미보살·지장보살·신농씨는 산바소(三番叟)의 위치에

11) 「國文學の發生(第三稿)」, 신전집 제1권, 36쪽.

있는 자이다. 게다가 농경을 축복한다고 하는 오키나(翁)와 산바소의 목적은 오키나와(沖繩)의 마레비토 이상으로 소늘음굿에 보이는 한국의 마레비토에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오리쿠치의 마레비토論이 한국의 민속에서도 보장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늘음굿의 예도 참조하면서 오키나(翁) 즉 마레비토가 이중화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 왜 오키나(翁)에게 산바소가 부속되고, 조자노우후츄(長者の大主)에게 기라이노우후누시(儀來の大主)가 부속되며, 제석에게 애미보살 이하의 신들이 부속되어 있는 것일까?

오리쿠치는 이 이중성을 모도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모도키는 '모도쿠'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모도쿠'는 '반대하다' '반항하다' '홍내를 내다' '설명하다' 등의 의미이다. 그리고 마레비토論의 문맥 안에서 '모도키'는 본래, 토지의 정령이 마레비토의 위압에 처음에는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이윽고 마레비토의 언동을 받아들여 스스로 그 신의 언동을 홍내내고, 설명을 위해 부연출을 행한다고 하는, 그 정령의 언동의 전 과정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정령의 언동은 신의 언동의 '모도키'인 까닭에, 그보다도 하위인 정령이나 지상의 인간들은 일종의 신의 언동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마레비토의 이중성,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중층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하위 마레비토들의 언동이 최종적으로는 절대적인 외부성을 갖고 있는 최초의 마레비토의 언동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다. 이 최초의 마레비토는 촌락의 의례 중에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등장하는 마레비토들이 복수(複數)라는 사실 즉 중층성을 지닌 것에 의해 최초의 마레비토는 관념적으로 그 존재가 인식된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촌락과 촌락내의 언동은 규범을 획득한다. 농경도, 사람들의 언동도 이 규범에 의거해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경우 마레비토가 해가 바뀔 무렵에 이 땅을 찾아오는 것은 새로운 해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제주도의 입춘굿이나 평산의 소놀이굿과 같은 한국의 모의농작의례에도 마레비토의 중층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입춘굿의 호장과 무격들은 앞에서 보았듯이 마레비토와 그 권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관아에 이르러 목사를 배알하는 장면을 보면, 목사가 그들보다 더 상위의 마레비토로 설정됨을 알 수 있다. 목사는 내방한 마레비토들의 모의농작 연회를 상좌에 앉아 구경한다. 그는 다른 구경꾼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 그는 연회는 하지 않지만 신으로서의 위치에 있음은 틀림없다. 그가 앉는 장소는 말하자면 빈객이 앉는 장소이며, 연회 전체가 실은 그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목사는 최초의 마레비토의 장소에 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존재이며, 호장과 무격의 모의농작은 토지의 정령이 마레비토에게 하는 서약 행위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평산 소놀이굿의 제석과 애미보살 이하의 신들이 중층적인 마레비토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이들 마레비토神들보다 더욱 상위에 옥황상제가 존재한다. 옥황상제는 무가 안에만 등장하고, 실제로 지상에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글 앞에서 정의했던 마레비토의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지상을 찾아오는 마레비토들의 언동의 원천이 천상에 있는 것이라는 관념을 옥황상제의 존재는 명확히 제시한다. 옥황상제는 이른바 마레비토의 절대적 외부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갖추고 무가 안에 등장하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 곳에서 중층을 이루고 있는 마레비토들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자라고 파악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 「마레비토」의 개념을 통해 한일의 몇 가지 제의민속을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오리쿠치 시노부가 일본의 민속에서 추출한 이 개념이 한국의 민속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한 개념이 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한국의 사례가 「마레비토」의 이론을 한층 더 보강해 줄 것임이 분명하다.

「마레비토」란 신을 환시(幻視)하는 구체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이와 같은 장치가 짙게 남아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리쿠치는 오키나와(沖繩) 민속을 접함으로써 「마레비토」 이론을 발견해내고, 그 이론을 중심으로 일본의 제의나 연극의 역사를 재구축해 새로운 학문을 창조해 나갔다. 이 점을 생각하면 이제부터 일본의 제의연구, 연극사 연구가 한국, 특히 제주도의 제의 연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유의하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金斗奉, 『濟州島實記』, 濟州島實蹟硏究社, 1936.
- 文武秉, 『탐라입춘굿놀이』, 제주전통문화硏究소, 2000
- 森田悌·金田久璋, 『田の神まつりの歴史と民俗』, 吉川弘文館, 1996.
- 西谷勝也, 『季節の神々』, 慶友社, 1990.
- 孫晉泰, 「隨聞錄」, 『孫晉泰先生全集』 제6권, 太學社.
- 新井恒易, 『農と田遊びの硏究』 下卷, 明治書院, 1981.
- 李杜鉉, 「黃海道 平山소놀이굿」, 『선청어문』 16·17, 1988.
- 伊藤好英, 『折口學が読み解く韓國藝能—まれびとの往還』,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6.
- _____,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의 예능학을 통해 본 한국의 민속」,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全羅南道濟州道庁편, 『未開의 宝庫 濟州道』, 全羅南道濟州道庁, 1924.
- 折口信夫, 「國文學の發生(第三稿)」, 折口信夫全集刊行會편, 『折口信夫全集』(新編集決定版) 제1권, 1995.
- 鄭炳浩, 『農樂』, 열화당, 1986.

Abstract

Marebito Presence in Korean and Japanese Religious Festivals
- Focus on the Jeju Island First Day of Spring Exorcism -

Itō Yoshihide 伊藤好英*

Orikuchi Shinobu 折口信夫 classified a particular type of kami 神 (Japanese divinity) as marebito. For Orikuchi the term marebito deals with the man-god in between entities, who appear in this world only in particular occasions. The marebito are visiting divinities with a human aspect, due to the fact their presence is acted-out and performed by men dealing with sacred entertainment arts. Three are the fundamental qualities of the marebito:

- 1) the visible form
- 2) the magic and protective nature of their words
- 3) the divine quality of their actions

Orikuchi exclusively theorized the notion of marebito for the Japanese context, but - according to the structural nature of his theory - is also possible to think about a large-scale application of the marebito's category. The present paper aims to analyze some Korean religious festivals using the marebito concept. From the Korean side, this paper focus on the arming ritual of young rice plant of Jangyeon and the spring exorcism of Jeju Island and Pyeongsan's cattle play exorcism, from the Japanese one, it deals with the yamadosan of Awajishima, the onda festival in Nara prefecture and the mura odori of

* Meiji University lecturer

Okinawa. For example, the mountain god of young rice plant ritual of Jangyeon and yamadosan mountain god of Awajishima mutually share the quality to be visible kind of gods. Also the harvest god jesok帝釋 of the Pyeongsan's cattle play exorcism and the hojan戶長 of the first day of spring exorcism of Jeju Island may be categorized as marebito. Compared with Japan, the hojan is similar to the taaruji田主 in Nara and the Pyeongsan cattle play exorcism shares some similarities with the modoki structure of the mura odori in Okinawa.

Marebito are sacred mediators employed to make visible the kami's presence and they are still active in many areas of Korea and Japan. Thanks to this comparative approach concerning the shearing concept of marebito in Korea and Japan, we also hope for a radical rethinking process dealing the researches about religious festivals and the history of sacred representations in both countries.

Key Words

Orikuchi Shinobu, marebito, ritual of young rice plant, the first day of spring exorcism, cattle play exorcism, yamadosan, onda festival, the mura odori

교신 : 이토 요시히데 주소 : 日本國神奈川縣川崎市多摩區菅北浦4-15-13
(E-mail : itokoei@hanmail.net)

최종투고일 : 2007. 7. 3.

최종접수일 : 2007. 7. 25.